

신동기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세상보기



카이사르가 끝내 황제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와 닮았다. 중국 위진남북조(221-589) 시대에 위나라 창업자 조조가 '천자를 끼고 천하의 제후들을 호령' (挾天子 令諸侯) 하여 실제적으로는 황제와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조조는 황제와 다름없는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절대 군주인 황제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에 있어서는 이름 그대로 사실 황제였다.

서게 된 것이었다' 라고 남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은 사실 전제보다 혼란이었다. 따라서 로마의 자유민은 왕정시대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전제군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었다. 기억이나 의식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현실이 너무 다급해서였을 수도 있다. 카이사르가 실제로는 황제나 다름없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극존칭 또는 명예부여에서도 증명된다.

황제나 다름없었던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인 '중신독재관(Dictator Perpetua)' 뿐만 아니라, 종신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 종신 '최고사령관(Imperator)', '국부(Pater Patriae)', '원수(Princeps)'와 같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온갖 명예들을 다 갖는다. 또한 자신이 태어난 달을 자신의 성을 따 'July(영어로 7월, 라틴어로는 Iuglio)'로 명명하는 영광도 갖는다. 그리고 사후에는 원로원 결의로 '신(神)'의 자리에 오른다. 사후에는 황제를 건너 뛰어 아에 신이 된 것이다.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는 그냥 국가가 아닌 제국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로마세계는 민족과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도 많

황제의 역사 (3)

대. 이런 나라를 고대인은 제국(임페리움)이라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황제의 출발을 따지자면 그 시원은 사실 알렉산더 대왕(재위 BC336-BC323)이다. 알렉산더는 고대 그리스의 국가 개념을 바꾼 인물이다. 불과 13년이라는 짧은 정복기간 동안 도시 국가 폴리스를 동서로는 그리스에서 인더스강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확장시킨 인물이다. 이를테면 다민족·다종교·다언어로 이루어진 최초의 제국이고 당연히 최초의 황제이다. 그러나 후인들은 그런 알렉산더를 알렉산더 대왕(Alexandros the Great)이라 부르지 알렉산더 황제라 부르지는 않는다.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에서 돌아오는 도중 삶을 마감으로써 제국 체제를 갖춰 3대륙을 다스릴 기회를 아예 갖지 못했고, 또 알렉산더 사후 3대륙은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곧바로 분할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뛰어난 왕이라기보다 차라리 뛰어난 장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양 최초의 공식적인 황제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재위 BC 27-AD14)다. 카이사르 여동생 율리아의 외손자인 옥타비아누스는 18살에 카이사르의 후계자이자 양자로 지명받았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유지를 받들어 지중해 세계의 마무리 정복활동과 함께 절

대 군주로서의 실질적 및 공식적인 1인 권력 체제 확보에 나선다. 36살에 국가 운영에 대한 전권을 쥐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최초 공식황제 옥타비아누스 '임페라토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의 공식적 명칭처럼 BC27년에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이다. '다민족·다종교·다언어'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지위는 파스로마나(Pax Romana)로 불리는 호황제 시대(96-180)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게르만족의 일족인 고트족 토벌에 나섰다 테키우스 황제(재위249-251)가 오히려 야만족의 유인에 빠져 전사한 이후 로마는 야만족들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사게 되고,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226-651) 공격에 나선 발레리아누스 황제(재위253-260)는 오히려 적에게 포로로 잡혀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인문경영 작가&강사·경영학 박사 ※출처: 신동기 저 '오래된 책들의 생각' (2017, 아틀라스북스)

사설

민심 받들어 지역발전 매진하라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추이로 볼 때 예견된 바 크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격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엔 회초리를 든 민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승리했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역대 최대 압승'을 거둔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곳의 광역단체 수성에 그쳤다. '보수 침몰'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지방선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한편으론 유권자들의 국정과 여야 정치의 책임을 묻는 표심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엔 힘을, 야당엔 체책을 휘두르는 결과를 보여준 셈이다. 광주시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자리 확충이다. 때마침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광주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기대를 모은다. 이 당선인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남 역시 마찬가지다. 김영록 도지사 당선인은 '전남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공약대로 현재 전남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경제 회생에 매진해야 한다. 농수축산업과 에너지·농생명 등 새로운 미래전략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약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의 압승에 자만해선 안된다. 야권과 보수 진영 역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 선거가 끝난 만큼 여야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자의 책무 게을리해선 안돼

여당에 힘 실어주고 야당 질책

각 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의 승리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 크다. 문재인 정부의 변화와 개혁 노선에 대한 지지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의 개혁 드라이브를 결코 멈춰선 안된다. 앞으로 2020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정부 여당은 국정에 전념할 시간을 확보해 줬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막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음을 한시도 잊어서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궤멸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 국당으로서 패배의 후폭풍이 불풍가

기고



조영한 수필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높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아래로 뻗은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 요즘 갑자기 뜨는 사람 중 아래로 파고드는 깊이 없이 쉽고 빨리 위로 성장하려는 사람은 어느 순간 높이 자랑 수는 있지만, 높이를 지탱할 수 있는 깊이가 없어서 쉽사리 무너진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 위로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을 결정한다. 잡초의 생명력은 위로 자란 줄기의 높이보다 아래로 자란 뿌리의 깊이가 결정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뿌리 뽑히는 나무가 되지 않는다. 일단 뿌리가 뽑히면 나무는 더는 생명 연장이 불가능하다.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자 결국 위로

근심업무(根深葉茂)

높이 자랑 수 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 위로 줄기와 가지를 뻗으려는 노력보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뿌리 내리기를 포기한다면 성장의 가능성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가지 없으며, 가지 없이 꽃을 피울 수 없고, 꽃이 피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의 풍족함과 풍요로움은 뿌리의 깊음과 힘겨움을 버려내는 노고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사람은 가끔 우쭐충동이 앞선다. 이럴 때 '위로 밖으로' 향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아래는 안으로' 파고드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래로 숙여야 더 높이 치켜세울 수 있다. 밑으로 파고들지 않고 치켜세우려고만 하면 금방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를 탄탄하게 가꾸어야 한다. 기초는 기본이고 본질이다.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파고들어야 한다. 확고부동한 신념은 파고들어진 깊이에서 나온다. 나무가 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아래로 뻗은 뿌리 덕분이다. 나무는 위로 향하면서도 옆으로 몸집을 불린다. 사람은 위로 성장하는 키에 비해 옆으로 성장하는 몸집 불리기는 그다지 이미지가 좋

지 않다. 몸집 불리기는 지나친 욕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나무가 높이 성장하는 것은 수직적 깊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적 성장이고 옆으로 몸집 불리기는 수평적 넓이의 확산을 통한 공간적 성장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나무는 위아래로 성장하는 동시에 옆으로도 성장하면서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 사람에게 수직적 깊이의 심화는 곧 전문성의 추구를 통한 종적(縱的) 심화 과정이다. 이에 반해 수평적 넓이의 확산은 또 다른 전문성과의 부단한 집착을 통한 인식 지평의 확대, 즉 횡적(橫的) 확산을 의미한다. 부정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수평적 몸집 불리기와는 다르게 횡적 확산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좌경관천(坐井觀天: 우물 안에서 하늘을 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투노력이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나이가 있다. 하나는 깊이 파고든 수직의 나이이다. 수직의 나이가 깊을수록 해당 분야의 전문성의 정도도 깊어진다. 또 다른 하나는 수평의 나이이다. 수평의 나이는 인간관계를 통해 인맥을 구축한 관계의 나이이다. 수직적 깊이 없는 수평적 넓이는 참을

기고



이창수 전남경찰청 제1기동대

6월에 접어들면서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기 시작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물놀이의 계절인 만큼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물놀이의 안전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먼저 무더워진 날씨만큼이나 무

차량 안에 아이만 남기는 행위 '위험 천만'

더워진 차량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차라면 피약벌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 얼마나 뜨거울지 알 것이다. 한번쯤 뉴스를 통해서나, 주위에서나 들어봤을 것이다. 차량 안에 놓아둔 플라스틱 가스라이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탄산음료가 든 캔이나 페트병이 터져 내부가 엉망이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가스라이터나 캔, 페트병이 뜨거운 차량 내부의 온도에 저렇게 터질 정도인데, 혼자서 차량의 문을 열고나올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끝에서 휴가 중이던 부부가 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고 쇼핑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다행히 현지인의 신고로 아이들이 숨지거나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등의 끔찍

한 결과는 면했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함께 충분히 경종을 울린만한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잠깐'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거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최소한 한번쯤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잠깐' 다녀오기 위해 아이를 차량 안에 남겨둔 경험은... 이제는 이것을 '방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잠깐' 아이를 차량 안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의 공동연구팀은 차량 바깥 온도가 37도일 때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에 자동차를 1시간만 주차해 놓아도 실내 온도는 46.7도, 시트 온도는 50.1도까지

오르고, 그늘에 주차해 해 놓아도 2시간이 안된 상태에서 일사병 기준에 도달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것은 아이를 남겨둔 것일까 방치한 것일까? 아이들의 경우 1시간만이라도 심부온도(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가 올라 고체온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40℃도를 넘어서게 되면 단순한 고체온증이 아니라 어른이라도 중추신경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도는 더욱 올라간다. 혼자 힘으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절대 아이를 혼자 차량 안에 '방치'하지 말고, 혹여 아이를 혼자 있게 된다면 꼭 창문을 열어 놓고 문을 잠그지 말아야 지나가던 행인들이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사장·발행·편집인 김용남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李大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FAX (062)720-1080-82 인쇄처 다원 인쇄 E-mail: jndn@chol.com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망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

독자광장 '여성 혐오' 무방비 노출된 청소년들 최근 유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성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광장히 우려된다. 유튜브(YOUTUBE), 아프리카TV 개인방송.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매체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여성 혐오적 발언과 행위를 동영상으로 업로드하거나 개인방송으로 송출하는데 그 일부 이용자들이 바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 옹고 그름을 판가름하기에 미숙한 청소년들은 집단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혐오적 표현과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